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其1)

A study on the general Kim Yoo-Shin expressed in folk tales : part I

저자 (Authors)	김선풍 Kim, Sun-poong
출처 (Source)	아시아강원민속 20 , 2006.9, 9-24 (16 pages) The Asia Gangwon Folklore 20 , 2006.9, 9-24 (16 pages)
발행처 (Publisher)	아시아강원민속학회 The Society for Asia Gangwon Folkar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30254
APA Style	김선풍 (2006).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其1). 아시아강원민속, 20, 9-2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3 13: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其1)

김신평*

차례

- I. 서 언
- II.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
- III. 설화학계의 두 가지 설
- IV. 결 언

<국문초록>

신라 김유신장군에 관한 신화나 전설은 신이담(神異談)이 주류를 이룬다. 그가 오대산 산신으로부터 신술(神術)을 배웠고, 강릉의 선지사(禪智寺)에서 신검을 주조하여 삼국을 통일했다는 등등의 예화가 그것이니, 이 같은 신화적 전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자료는 물론이거니와 구전문학에서 흔히 발견된다.

<작성 鵠城>이나 <망성산 望星山><단석산 斷石山과 천탑산 千塔山> 전설을 근거로 할 때 그가 주조한 신검은 칠성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칠성의 정기를 받은 인물이었던 점도 하나의 방증이 되고 있다. 그는 선랑

*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

(仙郎)이었기에 불교적 사고법과 무교적 사고법을 원용한 신술을 펼쳤는데 통삼(統三) 전에는 칠성검(벼락대신·뇌공)의 위상으로, 통삼 이후에는 음악(萬波息笛)의 힘으로 나라를 수호했던 신격의 위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설화 구조는 신격 주몽설화의 구조와 유사하여 종교화축제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신화적 인물로 승화되어 갔던 것이다.

핵심어 : 김유신, 신이담, 칠성신, 칠성검, 벼락대신(뇌공), 천탑산, 작성(鵲城), 삼신신앙.

I. 서 언

김유신장군신(金庾信將軍神)은 민간과 무속에서 신앙되는 장군신의 하나이다. 이 신은 김유신이 사후에 신격화 되었는데 주로 산신 또는 서낭신으로 받들어진다.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서울의 한남동, 그리고 경상북도 군위군 일대에서 받들어진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그의 영웅적이고 신이(神異)로운 행적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아 신으로 모셔진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그의 탄생을 일러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났고 등에 칠성의 무늬가 있으며, 또 신이한 일이 많았다.”고 했듯이 탄생부터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또한,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경상도 군위현에 김유신신사(金庾信神祠)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만명(萬明)을 모시고 있으며, 무녀들이 그 만명을 모시는데 신당에는 반드시 명도(明圖)라는 구리거울을 걸어놓았다.”고 하여 김유신과 함께 그의 어머니 만명도 신격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속에서 받드는 ‘말명할머니’는 다름 아닌 ‘만명’인 것이다.

김유신은 특히 단오제와 관련하여 숭배되었다. 강원도의 대관령산신당은

김유신을 산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허균(許均)의 『성소부부고(惺所覆甗藁)』 권 14 대령산신찬(大嶺山神贊) 병서(并序)에 그가 여름에 강릉에 가서 단오제를 구경한 일이 있는데, 명주(지금의 강릉) 사람들이 5월의 길일을 택해 대령신(大嶺神:대관령 산신)을 맞으러 갈 때 그 신에 대해 이속(吏屬)에게 물어보니 “그 신은 다름 아닌 신라대장군 김유신”이라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신은 영이(靈異)함이 있어 명주사람들은 매년 5월초 길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현재도 강릉에서는 산로안전(山路安全)과 풍농·풍어를 비는 강릉단오제가 거행되고 있는데, 이 때 주신(主神)인 서낭신은 범일국사신(梵日國師神)이고, 산신은 김유신장군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허균의 시문집에 표현된 기록을 따른다면 김유신이 주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릉 시내에 김유신사당인 화부산사(花浮山祠)가 있는데, 지금도 매년 오월 단오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 신라 이후의 단오제의 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김유신사당에 대해서는 『동국세시기』 단오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군위군 효령(孝靈) 서악(西岳)에 김유신사당이 있는데, 속칭 삼장군당(三將軍堂)이라 한다. 여기서 매년 단옷날에 그 고을 수석 아전이 고을사람들을 데리고 역마로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가서 신을 맞이해 동리로 내려와 제사하는 풍속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강릉단오제와 군위의 김유신장군제는 같은 계열의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대로 왕이나 대장군을 치제(致祭)하던 유풍이 단오축제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¹⁾

본 소고에서 필자는 김유신이 어떻게 해서 강릉단오제의 산신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설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선풍, 「김유신장군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1988, 803쪽.

II. 설화를 통해 본 김유신

김유신을 소상히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 만명(萬明)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무교적 성격을 배재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김유신이 화랑출신이고 화랑조직의 정신으로 무장된 인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랑은 가무유오(歌舞遊娛)하는 청년의 사교 클럽과 같은 집회였고, 그 집회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청년전사단(靑年戰士團)의 기능을 하였으며, 국가적 교육기관 노릇도 하였다. 일찍이 최치원(崔致遠)은 풍류도를 일러 ‘실내포함삼교(實乃包含三教)’라 하였거니와 화랑집단은 다분히 수행을 실천덕목으로 하는 종교집단이었다. 『삼국사기』 권제 41 기이 제일(紀異 第1) 김유신(上)에 보면 신이한 그의 탄생담과 가계(家系)가 간략하게나마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삼국사기』 기록과 유사한 구전설화를 예화로 들어 그의 인격적인 면을 살피기로 한다.

* 신라 흥무왕(興武王)의 이야기

흥무왕 김유신은 왕경(金城) 사람이니 그 12대조가 김수로왕이었고 그 중조가 구해왕(仇亥王)이오 조부가 무력(武力)이오 그 아버지가 서현(舒玄)이었다. 서현이 길에서 갈문왕(葛文王)의 손녀 만명(萬明)을 보고 마음에 깃부어 하야 눈짓을 하야 그 녀자와 합하였다. 이런 뒤 서현이 만노군(萬努郡) 태수가 되어 만명을 다리고 가고자 하므로 이 때에 이르러 만명의 아버지 숙흘종(肅訖宗)이 그 딸 만명이 서현과 친합함을 알고 이를 미워하여 빈 집에 감우고 사람을 부리어 지키게 하였든 바 갑작기 집집문에서 퇴성이 진동하여 집을 지키든 자이 놀나 다라났고 만명은 집이 허그러진 틈으로 몸을 빠져 나와서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그 뒤 서현은 경신일 밤 꿈에 형혹(熒惑), 진(慎) 두 별이 자기몸에 떨어지어 보이었고 만명은 신축일 밤에 동자가 금강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당중에 들어 와 보이었더니 드디어 잉태하여 이십 삭만에 아달을 나흐니 이 때는 조선이 열린 지 이천 구백 이십팔 년이었다. 그리하여 어린 아해의 이름을 짓기에 일월어 서현이 부인에게 일러 같오되 “내가 경신일 밤 꿈에 이 아해를 얻었은즉 경신으로 이름 정하는 것이 맞당하나 례범에 일월을 두고 이름을 짓지 아니 하는 법, 이제 헤알이면 경(庚)은 그 형상이 유(庾)와 비슷하고 신(辰)은 그 음즉 신(信)과 비슷할 뿐 아니라 예적 현인에도 유신이라고 이름한 이가 잇었은즉 이로써 이름을 정치 아닐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유신으로 정하였다. 유신이 장성하여 나히가 열 다섯에 일월어 화랑(신라 진흥왕 시대에 관원을 뽑기 위하여 나라에서 가르쳐 길르는 젊은 남자들이) 되었으며 열 일곱 살에 일월어 고구려 백제 말갈 여러 나라들이 신라 지경을 침범하므로 도적을 평정할 강개지심이 나서 홀로 중앙 석굴에 들어 가서 재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서하여 같오되 “적국이 무도하기 사랑 같아서 우리의 지경을 침로하여 편안한 해가 없습니다. 오죽 이 한낫 미신(微臣)이 재력(材力)을 헤알이지 아니 하고 화란을 맑히기에 뜻을 먹으오니 오죽 하늘이 내려 살피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고 잇은 지 나흘만에 홀연 한 로인이 측벼 옷을 입고 나타나 같오되 “이 곳에 독사와 사나운 짐승이 만하여 아주 무서운 땅이라 소년을 엇지하여 와서 홀로 거처하나뇨.” 하였다. 유신이 대답하여 같오되 “어른께서는 어데서 오시었으며 존명은 누구이라 하시옵니까.” 하였다. 로인이 같오되 “나는 정한 집이 없이 인연을 말하서 행지(行止)를 하므로 형상하여 말하기 매우 어렵도다.” 하였다. 유신이 이 말을 듣고 그 로인이 범인이 하닌 줄 알고 두 번 절하여 같오되 “저는 신라 사람으로 나라의 원수를 보고 마음이 쓰리고 머리가 아아서 이 곳에 와서 맞날 바 잇기를 바라오니 어른께서 나의 정성을 어엿비 여기사 방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였다. 로인은 잠잠코 아모 말이 없고 유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기 룩 칠 번에 일오매 로인이 말하여 같오되 “그대가 삼국을 아울러 뜻을 두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하고 이에 비밀한 술법을 가르쳐 주어 같오되 “삼가서 함부루 베풀지 말라. 만약 울치 안케 쓰면 돌이어 양화를 받으리라.”

하고 말이 끝나자 물러 나서 한 이 리쯤 갔는데 좇아 가도 좇을 수 없고 바라보아야 보이지도 아니하며 오죽 산 우에 무슨 광채가 나타나서 오색이 령롱하였다. 이듬 해 열 여덟 살에 이웃 나라의 침범이 심하므로 유신은 더욱 강개한 마음을 품고 홀로 보검을 꺼고 인박산(咽薄山) 깊은 구렁이 가운데에 들어 가서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기도하며 축원하기를 전년 중악산에서 하듯이 하고 천관(天官)에게 광채를 드리어 보검에 령기(靈氣)를 나리기를 빌었더니 사흘 되든 날 밤에 허성(虛星)과 각성(覺星) 두 별의 빛이 빛나게 드리어 나리며 보검이 흔들리어 움죽이었다. 유신은 이와 같이 수도하여 령험을 얻은 뒤 태종 무렬왕과 문무왕을 도아 삼한을 통합하였고 뒤 흥덕왕 시대에 흥무왕으로 추존되었으니 이 분이 우리 조선 김시 증 후김(後金)의 선조이었다.²⁾

김유신은 이처럼 만명을 통해 ‘칠요(七曜)의 정기’ 곧 칠성신계(七星神系) 동자로 태어난다. 칠성신이나 삼신(三神) 신앙은 이미 신라 시대 이전부터 고착돼 내려온 한국신앙의 하나였다. 국선향도(國仙香徒) 김유신이 고구려의 자객인 백석(白石)을 형벌할 때 백미(百味)를 갖추어 삼신(三神)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감안할 때 삼신사상이나 칠성사상이 얼마나 보편적인 사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유신설화와 고구려 주몽설화는 설화의 구조상 같은 화소를 지니고 있다.

삼국 중 고구려는 두 신당(神堂)을 지어놓고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화(柳花)를 신으로 모셨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어떻게, 또 어떤 신위로 모셔졌을까? 그 예화(例話)를 들어 보기로 하자.

* 작성(鵲城)

경주군(慶州郡) 서면(西面) 건천(乾川) 역의 동북 사이에 자그마한

2) 金熙祥, 『朝鮮史話』, 檀民出版社, 1946, 29~32쪽.

토성(土城)으로 된 한 산이 있으니, 이 산을 ‘작원(鵲院)’ 또는 ‘작성(鵲城)’이라고 하는데, 이 산은 신라 ‘부산성(富山城)’을 쌓기 전까지는 신라의 서울을 방비하는 요새지였다.

신라(新羅)의 스물아홉째 임금인신 무렬왕(武烈王) 때의 일이었다.

각간(角干) 김유신(金庾信)은 백제(百濟)를 치고자 군사 5만을 거느리고 왕성(王城)에서 물러 나와 진군하기 30리 남짓 이 작성에서 첫날의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서쪽에서 한 마리의 이상한 까치가 날아와서 진영(陣營)의 위를 돌고는 진영에 꽂혀 있는 대장기 끝에 가 앉았다. 군사들은 불결한 조짐인 듯이 괴상하게 여기자 또 한편으로는 놀라며 진중은 혼란하였다. 이 광경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던 김 유신은 허리에 찬 큰 칼(長劍)을 빼어 우뢰 같이 까치를 향하여 소리치니 그 까치는 땅에 떨어지면서 홀연히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인으로 변하였다.

이는 당시 삼국의 절세미인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백제의 공주 계선(桂仙)이었으니, 그 연약한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검술과 신술(神術)을 배운 그였다. 백제왕이 신라의 용장 김유신(金庾信)이 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 온다는 정보를 받고 계선 공주에게 한 꾀를 도모할 새 이 공주는 “적지에 들어 가 정세를 알아보고 오리다.” 하고는 곧 신술로써 까치로 화하여 신라군의 진지로 날아왔던 것이다.

유신은 이 미인을 붙잡아 항복을 받았는데, 이리 하여 이 성을 “까치성” 곧 ‘작성(鵲城)’ 또는 ‘작원(鵲院)’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³⁾(檀紀 4267년 8월, 慶州郡 西面 泉浦里 金容熙氏 談)

<작성 이야기>에서 김유신은 백제의 절세미인인 계선(桂仙) 공주를 장검과 우레 소리로 제압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현대 무인(巫人)들도 모시는 ‘벼락대신 신’을 연상할 수 있다.

3)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46~247쪽.

* 단석산(斷石山)과 천탑산(千塔山)

신라(新羅) 때, 김유신이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무술을 닦고 있었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검(神劍)을 가지고 바윗돌을 끊어뜨려 천지(天地) 신명(神明)께 빌었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을 단석산(斷石山)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깎아 놓은 듯한 바위가 몇 백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많이 서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탑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탑암(千塔巖)이다.

신라 때, 명승(名僧)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이 단석산의 단석사(斷石寺)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다. 국사(國師)라고까지 높이어 공경(恭敬)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므로 그 이름은 멀리 당(唐)나라에까지 알려졌다.

그 때 당나라 어느 큰 절에 주지가 있었는데, 그 절 주지는 좋지 못한 사람이었으므로 천명이나 되는 절 중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원효 대사는 이 말을 듣고 가깝게 여기어 하루는 자기가 짊고 있던 지팡이(錫杖) —혹은 나무 조각이라고도 전한다. —를 그 절을 향하여 날려 보냈더니,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는 멀리까지 날아 가, 그 절 앞마당에까지 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빙빙 돌고 있었다. 그 절 중들은 모두들 이상히 여기어 문 밖으로 나와 그 지팡이를 쳐다 보매, 그 때에 절 뒤에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자 절은 부서지고 그 때에 악독한 그 주지만이 즉사하고 말았다.

뒤에 그 절 중들이 이 지팡이를 알아보니, 이는 신라의 원효대사의 것임을 알자, 천여 명의 중들은 감사의 예를 드리하고자 산 넘고 물 건너 이곳까지 찾아 왔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원효 대사가 죽은 뒤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대사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돌탑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떠났다고 한다. 그리 하여 이 바윗돌을 ‘천탑암’이라 부른다고 한다.⁴⁾ (檀紀 4267년 8월 慶州郡 西面 泉浦里 金容熙 老人 談)

<단석산과 천탑산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다. 김유신이 할아버지와 아버

4)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253~254쪽.

지로 대물림해 물려받은 신검을 가지고 석산(石山)을 자르고 그 돌로 많은 탑을 쌓았다는 암유로 이해가 된다. 불가의 사교법과 선교(仙敎)의 사교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목이다. 호국의 영산인 단석산과 천탑산의 영기·영경과 불가의 지팡이가 당 나라의 어느 못된 주지를 제압했다는 게 경계의 요점이다.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신통방통한 신검이나 지팡이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신검은 칠성검이었을 것이다. 신검이나 지팡이가 통일 전의 신물(神物)이었다면 통삼 이후의 신물은 대로 만든 젓대(笛)라는 것이었으니, 이때도 문무왕과 김유신장군이 다시 천신의 위상으로 신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가오고 있다.

* 만파정(萬波亭)

신라(新羅)의 설혼한재 임금이신 신문왕(神文王)은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감은사(感恩寺)라는 절을 동쪽 바닷가에 이룩하시었는데, 그 이듬 해 5월에 해관(海官)이 와서 “동쪽 바다 가운데에 보지 못하던 자그마한 산이 나타나 감은사로 향해 떠오며, 물결을 따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옵니다.” 하고 아뢰므로 왕은 이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일관(日官)에게 점을 쳐보게 하였더니, 일관은 “그것은 성고(聖考)－왕의 아버지 곧 문무왕(文武王)－께옵서 이제 바다 용(海龍)이 되시어 나라에 난리가 나지 못하게 지키려고 왔습니다. 또한 김유신 공이 삼십삼 천(天)의 한 아들로서 그 아래에 대신(大臣)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거룩하신 이가 덕(德)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키는 큰 보배를 내어 주시고자 하시오니 만일 상감께옵서 바닷가로 거동하시오면 반드시 값칠 수 없는 큰 보배(無價大寶)를 얻으시리이다.”라고 아뢰다. 왕은 크게 기뻐하시며 그 달 초이렛날에 이견대(利見臺)에 거동하시어 그 산을 바라보시고 사신을 보내서 살피게 하시었다. 사신이 돌아와 왕께,

“산의 모양은 거북과 같고, 산 위에 대(竹) 한 줄기가 있어, 낮이면

둘이 되고, 밤이면 하나로 합하더이다.” 하고 이른다 .

왕은 그 날 밤, 감은사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오시(午時)(오전 열 한 시)부터 오후 한 시에 두 대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천지가 진동하며 바람과 비가 몰아치기를 이렛 동안이나 하다가 그 달 열 셋째 날에 비로소 바람이 자고, 물결이 고요하였다. 그리 하여 왕은 배를 타고 그 섬산에 들어가니 거기에 한 용이 나타나서 검은 옥띠를 바치므로 왕은 용과 마주 앉아 물었다.

“이 산의 대는 혹은 떨어지고 혹은 합치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예, 그것은 비유하건대,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없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대라는 것은 합한 다음에야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상감께서는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소서. 이 대(竹)를 베어 짓대(笛)를 만들어 불으시면 천하가 평화할 것이니이다. 이제 성고깨우쳐 바다의 큰 용이 되시고 또 유신이 다시 하늘의 신(天神)이 되어, 두 거룩한 이가 마음을 같이 하여 이 값칠 수 없는 큰 보배를 내어서 나더러 갖다 드리라 하더이다.” 한다.

왕은 놀라시고 기뻐하시어 사신을 시켜 그 대를 베어서 배를 타고 돌아오시니 그 산과 그 용은 홀연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왕은 환궁하신 뒤 그 대로써 곧 짓대를 만들어 월성(月星) 천존고(天尊庫=대궐 안 고간)에 간직해 두시었는데, 이 짓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오며, 가을 때에는 비가 오고, 비 올 때에는 날이 개며,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자므로 이 짓대의 이름을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하고 나라의 보배로 삼았다.

뒷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해안(海岸) 풍경이 좋은 나정리(羅亭里)에다 만파정(萬波亭)이라는 정자를 세웠다고 한다.⁵⁾ (檀紀 4267년 8월 慶州郡 西面 泉浦里 金容熙氏 談)

김유신설화의 주제는 뭐니뭐니 해도 그의 수행과정에서 추출(抽出)해야

5)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302~304쪽.

할 것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석굴에 들어가 산신할아버지를 만나 방술(方術)을 터득하였고, 보검을 통해 신비로운 무교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른바 무교적 이니시에이션의 체험을 몸소 했던 것이다. 그 때의 강령(降靈)은 신과의 교통이요 재생의 상징이었다.⁶⁾

시련이 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를 지켜주는 수호령(守護靈)들의 보호가 뒤따랐다.

김유신이 18세 되던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국선화랑(國仙花郎)이 되었다. 이 때 어디서 온 지도 모르는 백석(白石)이라는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낭도(郎徒) 가운데 속해 있었다. 유신공이 고구려와 백제를 치려고 주야로 계획하고 있을 때 백석이 그 일을 알고 유신공에게 말하기를 “제가 공과 함께 은밀히 적을 탐지한 뒤에 계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다. 유신공이 기뻐하여 백석과 함께 밤길을 떠나 고개 위에서 쉬고 있을 때 두 여인이 유신공을 따라 오다가 골화천(骨火川)에서 유숙하고 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공이 세 남자와 즐겁게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과실을 내어놓아 공이 받아먹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그 정을 이야기하였다. 남자들이 “공의 말씀을 이어 들었으니 원컨대 공은 백석을 잠깐 떼어놓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실정을 말하겠습니다.” 아뢰고 함께 숲속을 들어갔다. 그런데 남자들이 갑자기 신이 되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림(奈林)·혈례(穴禮)·골화(骨火) 등 호국신인데 지금 적국 사람이 공을 유인하는 것을 공이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가 공을 만류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공이 듣고 놀라 쓰러졌다가 재배하고 나왔다.⁷⁾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유신은 칠성의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장수할

6)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88쪽.

7) 『:國道事』, 卷1 紀異1 金庾信條.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탄생 때부터 타고 난 인물이다. 또한 위인을 지켜주는 세 여신의 등장도 도선사상(道仙思想)과 미륵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설화학계의 두 가지 설

본 장에서는 박경열과 최래옥의 두 가지 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경열은 「김유신 탄생담의 구조적 특성과 주몽 탄생담의 관련 양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신 설화 속에는 신라 신화에 존재하지 않은 부모의 결연담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는 것이다. 곧 김유신 탄생담이 주몽탄생담을 그 근원으로 삼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야합을 통해 낳은 아들은 훌륭한”라는 동일한 구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김유신 탄생의 원형담은 신라 자체의 선대 이야기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고구려 쪽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⁸⁾

한편 최래옥은 정문연의 「김유신설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나타난 산신은 여신이며 친근하고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삼국사기』에 나타난 산신은 위압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아득한 존재이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도교적 전승에 의거한 중국고전에서 받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고, 『삼국사기』는 이른

8) 박경열, 「김유신 탄생담의 구조적 특성과 주몽 탄생담의 관련 양상」,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159~163쪽.

시기의 신관(神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전설화는 민중적 영웅의 모습에다 문헌설화에 나타난 요소를 덧붙인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또 『삼국사기』는 고대의 신화적 틀을 수용하면서도 중국고전의 서술을 규범으로 삼고자 한 흔적이 나타나며, 중세적 질서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작하려고 귀족적 영웅의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완전한 일대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삼국유사』나 구전설화는 고대의 신화적·민속적 유산을 더욱 직접적으로 잇고 민중적 영웅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한 시도가 엿보이나,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단편적인 이야기로 머물거나 지명에 얽힌 전설처럼 변하고 말았다고 논급하고 있다.⁹⁾

IV. 결 언

이상에서 설화를 통해본 김유신설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김유신이 김유신장군신으로 강릉에서 신격의 자리를 점하게 된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화부산사중수사적비(花浮山祠重修事蹟碑)——개국공순충장열흥무대왕비명(開國公純忠壯烈興武大王悲鳴)——에 의하면 문무대왕(文武大王) 때에 명주 주민들이 대장군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기 위하여 강모제(講慕齋)를 세워 제향을 올린 후 성황사(城隍祠) 제중사(濟衆祠) 김유신사(金庾信祠)로 봉사(奉祀)하다가 조선 고종 때에 대구 봉계 김홍두(金洪斗)의 규혼통문(叫閭通文)에 의거 강릉의 사림(士林)과 전국 후손들이 뜻을 모아 옛터에 화부산사를 중건 이안봉사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실존 실담(實談)에 의해 신격은 점점 부상되어 승화되었고 급기야 강릉단오제의 주신이 되었

9) 최래옥, 「김유신설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802~803쪽.

던 것이다.

그것은 신이한 신화 곧, 주몽신화와 동궤(同軌)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신격화될 만한 인격과 자질을 겸비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유신장군은 오대산 산신의 도움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칠성검을 만들었다든가, 강릉 칠송정의 해송을 군사로 변하게 하여 왜구를 물리쳤다는 고담(古談) 등 많은 일담(逸談)을 남기고 있다. 그야말로 강릉 주민을 괴롭혀 왔던 전방 오랑캐와 해상 왜구를 지켜준 인물이었기에 신격화 작업이 순탄했던 것이다. 허균이 그의 『성소부부고』 권14 문부11 대령산신찬(병서)에서 구가한 찬사에서 우리는 설화의 허구성을 이미 넘은 실제 신이 된 김유신장군의 위용과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웅장한 풍도에 영특한 기개
이제 수천 년이 되었건만
대령산 꼭대기에서
아직도 제사 받아
해마다 드리는 분향
누구라서 감히 소홀히 하랴
공의 낮은 어둡지 않거니
복 내림도 큼도 커라
구름타고 바람결에
살포시 오네
오곡은 무르익어 풍년 들었고
백성에겐 재앙 없어
동해바다는 넘실넘실
오대산은 구비구비 들쭉날쭉
천추만대에
향화 어이 그치리오
이몸 또한 공과 같은 겨레요

또한 같은 강릉 백성이기에
내 이제 송 지어
우리 신명 찬양하노라

V. 참고문헌

- 김선풍, <김유신장군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 1988.
金熙祥, 『朝鮮史話』, 檀民出版社, 1946.
박경열, <김유신 탄생담의 구조적 특성과 주몽 탄생담의 관련 양상>, 『고전산문의 계보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최래옥, <김유신설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 1958.
『三國遺事』, 卷1 紀異1 金分信條.

<Abstract>

A study on the general Kim Yoo-Shin
expressed in folk tales : part I

Kim, Sun-poong

Kim Yoo Shin[金庾信] is the general who unify three nations in Shilla Dynasty. He was born with his mysterious biography. He was able to unify three nations with the help from the god of the mountain. Even though he was dead, he was still considered as a god. But, generally, he is the god who resurrect as a village god[서낭신] or mountain god[山神]. The general Kim Yoo Shin was reborn in Kang-nung, Gun-we and Seoul area.

According to the folktale of Kim Yoo Shin, we can find out following characteristics.

- First, KimYooShin folktales chiefly are recorded in Samgukyusa[三國遺事] and Samguksagi[三國史記]. Also, KimYoo Shin Shin's folktale was passed down to the peopl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Second, the reason he was sublimed as the most known heroic god.
- Third, the reason the structure of story is similar to the first king folktale of Jumong[朱蒙] of Koguryo Dynasty.
- Fourth, the reason he became a human god who brings good harvest and good fishing and became the festival's chief god among other gods, etc.

* Key words : Kim Yoo Shin, Village god, Mountain god, Samgukyusa, Samguksagi